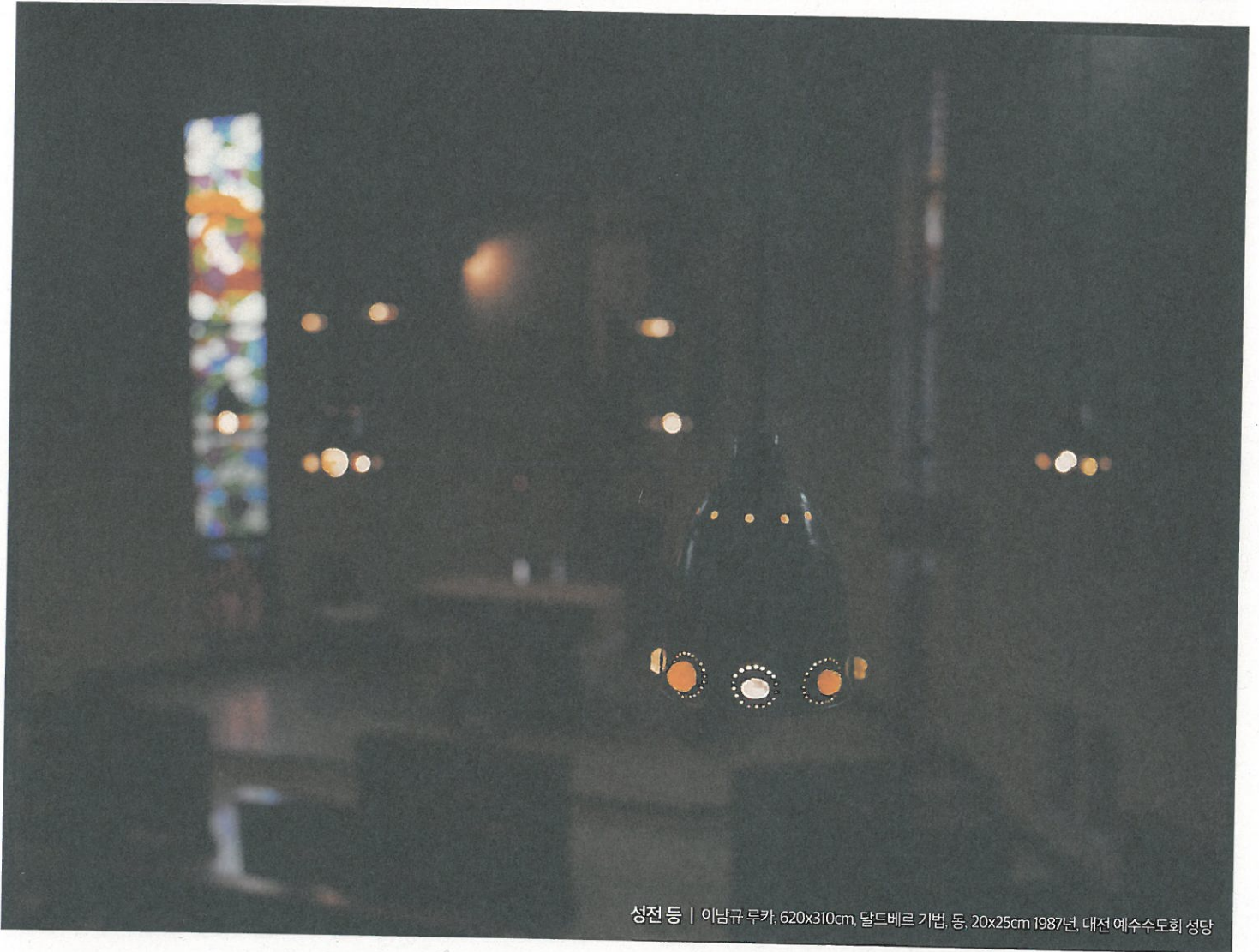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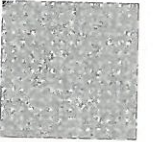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성전 등 | 이남규 루카, 620x310cm, 달드베르 기법, 동, 20x25cm 1987년, 대전 예수수도회 성당

입당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 주고,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리라.

제1독서 | 이사 55,6-9

화답송 | 시편 145(144),2-3,8-9,17-18(© 18 참조)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으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 필리 1,20ㄷ-24,27ㄱ

복음환호송 | 사도 16,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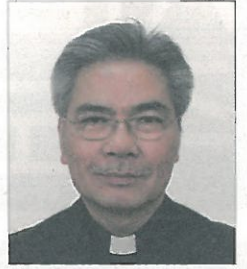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

복음 | 마태 20,1-16

영성체송 | 시편 119(118),4-5 참조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원고삼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사회는 주님의 포도밭입니까?

올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의 주제는 ‘이주할지 머무르지’ 선택할 자유입니다. 모국에 머물든 외국에 머물든, 혹은 외국으로 이주하든 모국으로 되돌아가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담화의 요점 중 하나는, 고국이 살기 적절한 환경이라면 품위 있는 삶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민들이 본국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가정의 이집트 피신도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주는 언제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심지어 오늘날조차 그렇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8개월 이상 계속된 전쟁에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비(非)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머무르거나, 그곳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베트남전쟁 난민이었습니다. ‘머물거나 이주하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그들도 단지 일하고 살면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을 원할 뿐입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용직 노동자는 밭 주인에게 일감을 얻기 위해 시장에 모였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바로 일을 찾았지

만, 어떤 일꾼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일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이 없어 돈을 못 벌면, 그날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느 교구, 본당, 지역 공동체가 그렇듯, 주님 포도밭의 일꾼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아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랜 사람에서부터 막 들어온 사람까지, 많이 기여한 사람부터 아주 조금 기여한 사람까지, 가장 재능 많은 사람부터 재능이 적은 사람까지,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부터 낮은 지위의 사람까지, 아주 거룩한 사람부터 죄 많은 사람까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는 이들을 포도밭에서는 모두 일꾼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국적이나 문화, 재능이나 재산, 능력이거나 기동성, 성별이나 나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를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선 아무도 배제되거나 소외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모든 이들은 형제애, 연대성, 시노달리타스를 주님과 만남 속에서 서로 나누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총(恩寵)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이에게 아낌 없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이처럼 골짜기가 첫째 되고 첫째가 골짜기 될 것이다.”(마태 20,16)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은 뒤로 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안의 달드베르가 박힌 소박한 등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스테인드글라스의 찬란한 빛이 사라지고 등의 불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존재를 드러냅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클래스



행복의 은총

지난 연말, 운전하던 중 라디오에서 클래식 채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송년이다 보니 한 해 동안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곡들의 차트를 발표했는데요, 1, 2위가 모두 같은 작곡가였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F.P. Schubert 1797-1828)였죠. 슈베르트의 작품 중 1위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작곡한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2위는 <세레나데>였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슈베르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임이 확실합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시에 곡을 붙인 음악 장르)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곡가로도 손꼽힙니다. 그는 집도, 돈도, 가족도 없이 친구들 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친구 집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하여 힘들게 음악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가정 형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슈베르트는 살아있는 동안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매일 쓴 그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밤 병으로 아파서 잠도 못 이루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지만, 내가 작곡한 음악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를 해줄 것이다.”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한 음씩 써 내려간 자신의 음악 작품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선물로 탄생하길 바라고 기도하며, 그는 그 안에서 행복과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슈베르트에게 음악은 그의 신앙이었

던 것입니다.

저 역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슬픔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평화로운 얼굴로 무대에 올라 연주하고 강의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순간, 오롯이 주님께 의지하여 저의 바이올린 연주와 강의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고,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만과 불안, 답답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저의 마음이 행복의 은총으로 점점 밝게 물들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참 행복은 오롯이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아멘.



김수연 클라우디아
바이올리니스트



흠없이 거룩한 교회, 그러나 불완전하게 거룩한 교회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교회현장〉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아니, “흠 없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앞에 ‘흠 없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요. 혹시 이 고백이 망설여진다면 아마도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 혹은 누군가가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바로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하루에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하니, 그것은 인간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완전히 거룩한 분은 하느님뿐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교회는 ‘불완전하게’ 거룩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흠 없이’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에페 5,25-27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은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흠 없이’ 거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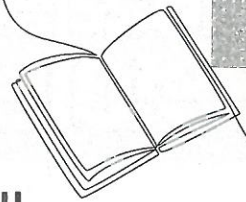
‘흠 없이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우리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 행위들에 대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사의 유효한 거행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제제도가 보증합니다.

한편 교회 안에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쇠신을 추구한다.”(교회현장 8항)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보다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께 속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가 저마다의 부족함을 품고 이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함은 선물이자 동시에 과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이 선물이자 명령인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고, 동시에 교회 그리고 우리는 충만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님이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레위 11,44-45; 1베드 1,16)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해져라.”(골로 3,12; 1테살 4,3-7; 2테살 2,13 참조)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인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는 명령입니다.(교회현장 5장 참조)

그리고 이 명령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완전한 신의를 지켜 자기 주님의 어엿한 신부로 살아가며, 성령의 활동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쇠신하여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꺼질 줄 모르는 빛에 이를 것이다.”(교회현장 9항)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에페소 선교와 예수님의 세례 (18,23-19,10)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이제 바오로의 세 번째 선교 여행(18,23-20,38)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오로의 모든 업적은 이 세 번째 여정 안에서 대부분 성취됩니다. 특히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두 번째 여행 때 가로막혀 있던 에페소가 중심이 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새로운 지방에 교회를 설립하기보다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설립해 놓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루카는 바오로의 에페소 선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에페소와 관련된 짚막한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아폴로라는 인물이 행한 선교 활동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며,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한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폴로는 코린토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코린토 첫째 서간을 보면, '나는 아폴로 편이다.'(1코린 3,4)라며 사람들이 아폴로를 중심으로 어떤 파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오로가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1코린 3,6)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어떻게든 코린토 신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에 관해 배운 다음에야 제대로 주님의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폴로와 에페소 신자들이 알고 있던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이루어진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물과 성령을 통한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는 회개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만, 물과 성령을 통한 세례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받는 새로 태어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로마 8,15)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여기서 '숨을 불어 넣는 것'은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체'(창세 2,7)가 된 아담의 창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영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선교는 완전한 선교가 아닌 과도기적인 선교였습니다. 이 선교는 바오로가 에페소로 와서 신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베풀면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골로 3,1)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대축일 미사에 여자 어린이 복사는 봉사할 수 없나요? 성인 복사로 봉사하는 여성도 보기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복사로 봉사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니 본당 신부님들의 안내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 남성만 복사로 봉사하던 시절이 있었나요?

네,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 위의 복사 말고, 다른 종류의 복사도 포괄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선교사나 신부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자 교우만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1887년 <한국 교회 지도서>에 보면 관련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자 교우여야 하고, 신부님과 함께 넓은 사목 관할 구역을 함께 여행하며 다녀야 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젊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복사에겐 간식으로 술을 대접해서는 안 되고, 여교우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점차 신부님의 시중을 드는 복사들에서 미사 복사가 분리됩니다. 다만, 미사 복사는 처음에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시중품이라는 이름의 ‘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품을 받을 수 있는 남자만 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중품이 시중직이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교회 직무로 바뀌면서 (남성) 평신도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여성이 복사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9년에 발표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었습니다. “부제 이하의 모든 계층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시중직이나 독서직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에게 맡



길 수 있으며, 사제석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무는 본당 신부의 재량대로 여성에게도 맡길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94년도에 교황청에서, 교구장이 허락하면 미사 복사를 소녀들에게도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어린이 여성 복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정된 미사 경본 총지침도 “제대에서 사제를 돕는 임무는 주교가 자기 교구를 위해 정한 규범을 따른다.”(107항)라고 동일한 맥락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교회가 너무 여성들의 봉사에 소극적인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 내 여성의 중요성을 거듭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의무 기념일이 축일로 승격된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승격을 선포하는 교령을 발표하면서 당시 경신성사성서 로시 대주교님은 “이번 결정은 여성의 존엄성 …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복사를 비롯한 전례 봉사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독서직과 시중직을 여성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 변혁의 핵심입니다. 물론 독서직과 시중직을 받지 않았어도 평신도들에게 해당 직무의 일이 이미 개방되어 있었지만, 이번 선포는 교회의 변화 의지를 교회의 직무에 제도적으로 연결하여 공식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열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교황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위해 구별하기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어느덧 가을을 기다리고 있지만, 울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매일 밤 열대야가 계속되던 때도 있었지요. 더위에 밤잠을 설치고 난 다음 날이면 낮에도 정신이 몽롱합니다. 사무실에서든 멍하니 있기 일쑤고, 쉬고 싶은 마음만 자꾸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가요? 근무 시간임에도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어야 마땅할까요?

여러 일로 정신없이 바쁜 날이 있습니다. 일정이 겹쳐서 점심도 못 챙기는 날이죠. 늦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파 옵니다. 회의 석상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엔 자꾸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릅니다. ‘식탐’일까요? 회의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일까요?

오랜만에 동창 신부들을 만났습니다. 본당에서 했던 사목 활동이 좋은 열매를 얻어서 이 내용을 동창들과 나누고 내심 자랑도 하고 칭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동창 한 명이, 그 활동은 본인이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것인데 그걸 이제서야 했느냐며 저를 놀립니다. 뿌듯했던 마음이 초라해지고 무시당한 느낌과 함께 그 동창에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듭니다. 고해성사 때 고백해야 할 죄일까요?

앞서 그릇된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계명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곧바로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죄를 “어떤 것에 대한 비

똬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1849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에 대한 비똬어진 애착’ 자체와 그 애착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 사이의 구별입니다.

열대야로 잠을 설치 다음 날,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쉬고픈 마음 자체와, 그래서 말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사무실 문을 닫고 잠자는 ‘행위’는 다릅니다.

점심을 굶어 회의 시간에 음식 생각이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욕을 느끼는 것 자체와, 그래서 회의 시간 내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음식 생각만 계속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동창 신부에게 무시당한 느낌에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와, 그래서 동창 신부에게 화를 내거나 꿈한 마음으로 양심을 품고 간직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비똬어진 애착’ 자체와 그 애착 때문에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 사이의 구별, 바로 건강한 죄책감을 얻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별입니다.

“마음이 빛나간 자도 제 행실의 결과로 채워지고 착한 사람도 제 행동의 결과로 채워진다.”(잠언 14,14)

상단 QR코드(아래)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월 24일)은 '이민의 날'입니다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월 28일(목)~29일(금)은 '추석 연휴'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9월 29일(금)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9월 25일 박동헌 마르코 신부(55세)
- 2004년 9월 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가톨릭페이머니즘 지금 이벤트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클릭하여
우리은행 WON뱅킹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혜택1 가톨릭페이에서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가톨릭페이머니즘 5천원 지급 (선착순 10,000명)

혜택2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가톨릭페이머니즘 5천원 이상 충전 시 가톨릭페이머니즘 3만원 추가 지급 (1,000명 추천)

'가톨릭하상' 앱 이벤트 안내

1	기 간	9월 18일(월)~10월 22일(주일)
2	대 상	우리은행 계좌 이용 교우
3	참 여 방 법	① 이벤트 기간 내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통해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 방문 ②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클릭
4	경 품 지 급 일	2023년 11월 13일 이후 개별 문자 통지 예정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추석연휴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때: 9월22일(금)~10월3일(화)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휴무 안내

추석연휴로 상설고해소 휴무입니다
 때: 9월28일(목)~10월1일(일) / 문의: 02)774-1784

하늘땅물빛의 날

대상: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빛 회원
 때: 10월7일(토) 10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신청):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10월5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민경일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 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13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부부, 개인), 자연주 기법을 전하고 싶은 분들 / 모집마감: 10월5일(목)
 때: 10월12일~12월14일 매주(목) 20시~21시30분(10주)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한글서예로 성경 말씀 쓰기	10월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대건축, 성경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에그리타 성가연주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수어로 드리는 기도	10월10일~10월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정년' 향주상덕	10월11일~11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 널 본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86차 미사 9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본당: 서울대교구 장련 본당, 대화동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온라인 피정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0월21일~22일, 온라인 줌(12명)
 신청방법: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참조(선착순 접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제33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① 신문, 출판 ② 영화, TV ③ 라디오, 인터넷 ④ 교구, 수도회 출판작
 2022년 10월16일~2023년 10월15일 발표작품
 접수: 10월15일까지 우편, 이메일(mscm@cbck.or.kr)로 접수 / 시상식: 12월6일(수)
 문의: 02)460-7626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www.cbck.or.kr) 참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바이올린, 해금, 뮤지컬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0월8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0월9일(월) 13시30분~16시30분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12월6일~1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김문희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라사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 · 반장 / 회비: 2만원(10월16일 마감)
 때: 10월23일~11월30일 /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9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10월3일(화)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10월4일(토) 오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10월17일(화) 오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새남터 순교성지~삼성산 성지)

2023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내용: 변화된 양육 태도, 놀이 지원, 훈육 방법, 칭찬 방법, 구체적인 신앙 전수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385, 2386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과목당 5만원
 신청기간: 과목1 10월6일(금)까지, 과목2 10월31일(화)까지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과목 1 유아발달이해	10월16일 · 10월23일 · 10월30일 · 11월6일 (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과목 2 신앙전수법	11월13일 · 11월20일 · 11월27일 · 12월4일 (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반장 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 문의: 010-5768-6894
 때: 10월27일(금) 20시~29일(일) 16시 / 선착순 30명
 곳: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대상: 모든 신자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 수녀회 청년 땅끝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10월8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신앙선조들은 세상의 벼슬보다 천당의 벼슬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10월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10월13일(금)~21일(토),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 010-3340-0201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 자체취사)	010-9715-1203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구만 주교(원주교구)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0차	10월6일(금)~14일(토)	문의:
제121차	11월17일(금)~25일(토)	061)373-3001,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010-3540-9001

2023년 성모솔송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일) 2박3일 10월13일~15일·11월10일~12일·12월8일~10일 / 010-3209-3955 (문자 접수)

골롬반 가을 청년 피정 / 문의: 010-3817-0567
 때: 10월14일(토) 10시~17시 / 대상: 23세~39세 신자
 10월9일까지 접수(bit.ly/ColumbanRetreat10)
 회비: 1만원 / 주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센터·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11월3일(금)~5일(일)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시 계수리)
 10월26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7일~9일·10월12일~14일·10월17일~19일
 ·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0월29일~31일
 ·11월3일~5일·11월11일~13일·11월17일~19일, 연
 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가정선교회 10월 피정-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피정	10월4일(수) 12시30분~17시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미사	10월7일(토) 12시30분~17시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0월21일(토) 12시30분~17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0월2일~4일,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 010-9842-8818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개강
 때: 9월18일(월) 19시 / 02)753-8765, 010-8931-8765
 곳: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 회비: 7만원

노들담몬테소리교육(노들담몬테소리학교)
 내용: 몬테소리교육 개인지도 / 문의: 010-6645-3114
 곳: 노들담수녀회(성북동) / 대상: 생후 18개월부터(영어)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10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서강대학교 '가톨릭 자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하느님 자비와 의탁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9월25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장당

노들담실천교리 대림·성탄 연수(실천교리 교육 연구소)
 때, 곳: 11월13일(월) 13시~16시30분·11월14일(화) 9시30분~13시(양일 중 택일), 노들담교육관
 (종로 북촌로) / 대상: 교리교사, 사제, 수도자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곳: 지혜의샘(부천시 송내동 366-5) 5층 / 010-3248-9705
 1) 앤데미 신앙회복을 위한 요한묵시록
 때: 9월13일부터 매주(수) 9시30분~17시30분(15강)
 2) 묵주성월 로사리오 피정
 때: 10월16일(월) 10시30분~17시30분

1강	정병덕 신부	2강	한영임 회장
----	--------	----	--------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2024학년도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16일(월)~27일(금) / 전형일: 11월17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모집

9지구 가톨릭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서울대학교 내에 교적을 둔 성인 남녀 전공자 및 비 전공자 모두 환영합니다 / 문의: 010-6325-7982 신일동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
 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도봉산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9시 미사 / 문의: 02)3491-2326
 대상: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파이프오르간
 유경험자 환영) / 이메일: cjjavus@seoul.catholic.kr
 성가 연습: 매주(목) 10시 미사 후·(일) 8시, 특별
 연습은 부활 및 성탄·주요행사 준비(장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개별 면접(보수는 면접시 협의)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9월27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일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
 (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곶벵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10월7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9월25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9월24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9월2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제: 이재국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백성호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9월 영화 치유 미사·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9월 영화 치유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9월27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2)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센터 / 문의: 02)828-3685

살레시오회가 전문적인 마음사목을 시작합니다
 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여성, 진로

가톨릭여성연합회 9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허보록 신부(파리외방전교회)
 때, 곳: 9월26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아동그룹홈 후원자 모집(도미니코 수도회)

보급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을 희망합니다
 아동그룹홈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982-9196,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한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한낮음악회

때: 10월10일~31일 매주(화) 12시30분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반주단

10월10일	이다솔	10월17일	최지연
10월23일	오세화	10월31일	최호영 신부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간호사 / 인원: 약간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20일(금)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cbck.kr) 문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범죄 청소년 및 수용자, 출소예정자, 봉사자
 전반적인 교육 담당 / 이메일: kyodo@catholic.or.kr
 서류: 입사지원서(내부 양식), 본당 신자 확인서,
 교적 사본 / 9월26일(화) 17시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correction.co.kr) 모집 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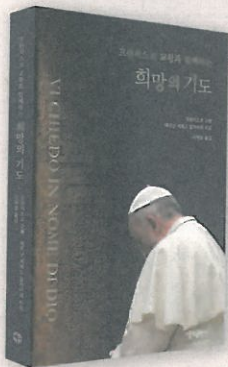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수도원	10월7일(토)~9일(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 5길 43	010-6561-2906(www.dominicocore.com)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수시	수도원(수유동)	02)902-148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월1일(일) 10시	서울 분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10월1일(일)	수녀원(서울)	010-8563-6875, 02)941-4139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10월 추천 도서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루카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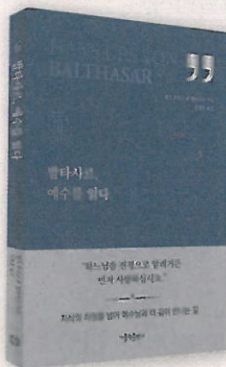
신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희망의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음 | 18,0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하는 10가지 기도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신간

발타사르, 예수를 읽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6,000원

20세기 대표 신학자가 알려 주는 성경 속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하느님 사랑의 현존을 알아볼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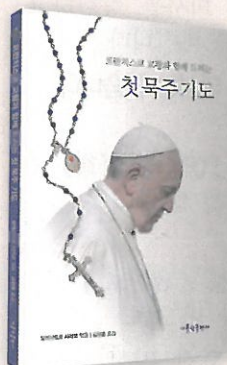
묵주 기도 성월 추천 도서

묵주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7,000원

묵주의 9일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줍니다!

나날이 커지는 묵주기도의 은총 매일매일 작성하는 나만의 묵주 기도 노트



묵주 기도 성월 추천 도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드리는 첫 묵주 기도

알레산드로 사라코 엮음 | 8,000원

교황님의 말씀과 함께 성모님께 보호와 은총을 청하세요!

“묵주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참되고 완전한 ‘찬송’이 되게 합니다.”



저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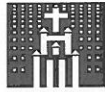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이벤트 기간 동안 《발타사르, 예수를 읽다》, 《기도의 세계》를 구매하시는 분에게 **독서 노트** 와 **책갈피** 를 드립니다



제229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9월 28일(목)	오전 6시 (평일미사)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9월 29일(금)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30일(토)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한가위합동위령미사신청은 9월 24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연령회 미사

일시 : 10월 3일(화) 오전 6시
연령회(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10월 3일(화) 오전 10시, 오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

9월 28일(목), 9월 30일(토), 10월 3일(화)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상지의 좌Pr. 레지오 선서식

일시 : 9월 26일(화) 오후 7시 40분 / 302호
선서자 : 김승주 스테파노, 박창엽 바오로

◎ 성모신심미사 : 10월 7일(토) 오전 10시

◎ 초등부주일학교 가을 성지순례

일시 : 10월 7일(토)
장소 : 서소문 성지
대상 : 유치부 ~ 초등부 6학년
문의 : 로사 교감
※ 10월 7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10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바오로시니어대학 야외행사

일시 : 10월 20일(금) 오전 7시 30분 성당에서 출발
장소 : 포천 광암이벽기념성당
참석대상 : 시니어대학에 등록된 학생들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구역 성지순례 일정

날짜	구역	장소	문의
10/14(토)	5	은이성지	010-2734-0853
10/14(토)	10	요당리성지	010-3953-1114
10/15(주일)	3	어농성지, 단내 성가정성지	010-2490-8853
10/28(토)	1	솔피, 해미성지	010-9092-1708
10/28(토)	4	풍수원성지	010-3709-5836
10/28(토)	8,9	풍수원성지	010-6407-9145 010-3239-6553
10/28(토)	11	감곡매곡성모순례지	010-8926-8267

◎ 청년배움터바오로 68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청년, 냉담자, 예비자)
모집 : 9월 10일(주일)~10월 14일(토)
여는마당 :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루치오 (010-3012-5592)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9. 1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9	821 (39.3%)	786 (37.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37-04-110875

◎ 감사헌금 (9월 11일~17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현선자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김재균	오만원
송완면	일십만원	고영은	일십만원
현화희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은희봉	오만원	김묘식	일만원
박정수	삼십만원		
故 김우성 요셉 상가	이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 (순교자 대축일)

교무금 7,290,000원
주일헌금 5,383,500원
헌미헌금2차헌금 2,007,000원

입당	24	봉헌	512, 213, 217	성체	156, 182, 187	파견	289
----	----	----	---------------	----	---------------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 게 가까이 계시네